

【서평】

근대의 멸치, 제국의 멸치

정 성 일*

I

아카넷이 대우휴먼사이언스 세 번째 간행물로 《근대의 멸치, 제국의 멸치—멸치를 통해 본 조선의 어업 문화와 어장 약탈사》(2015년, 12,400원)를 세상에 내놓았다. 이 책은 한일관계사학회 제3회 학술상(저술) 수상작이기도 하다. 저자인 김수희 교수(이하 ‘저자’)는 현재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저자는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뒤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하였다. 저자는 일본 도쿄학예대학(東京学芸大学)에서 석사학위를 도쿄경제대학(東京經濟大学)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하였다. 어업사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사 분야가 그의 전공이다. 저자는 귀국 후에도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2010년에 단독 저서로 발표한 《근대 일본어민의 한국진출과 어업경영》(경인문화사, 2010)도 그 중 하나다. 최근에는 저자가 독도 관련 논문도 다수 발표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 광주여자대학교 서비스경영학과 교수

II

《근대의 멸치, 제국의 멸치—멸치를 통해 본 조선의 어업 문화와 어장 약탈사》는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멸치를 열쇳말로 하여 개항 후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어업의 역사를 일반인들도 한 눈에 알 수 있게 풀어 쓴 학술 서적이다. 다양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시하고 철저하게 자료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점이 가장 돋보이는 이 책의 특징이다. 각 장에 ‘부록’ 형태로 주제별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도 독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 책은 모두 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장의 제목을 보면 전체 줄거리를 짐작할 수 있다. 제1장은 ‘조선에서 멸치는 뭐라고 불렀을까?’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여러 문헌에 기초하여 ‘멸치’라고 불리는 어종의 어원과 함께 다양한 속설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제2장은 ‘조선에서 멸치는 어떻게 잡았을까?’이며, 제3장은 ‘일본은 왜 조선 바다로 건너왔을까?’이다. 일본인이 조선 어장으로 오기 전과 후를 대비하여 멸치잡이가 조선 연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가 서술되어 있다. 제4장은 ‘일본 정부는 왜 조선 어업을 장려했을까?’에 관한 것이다. ‘조약’을 앞세운 일본 정부의 ‘정책’에 고무되어 일본 어민들이 조선의 거제와 마산 등 여러 곳에 와 ‘이주어촌’을 만든 사례가 실증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제5장은 ‘강원과 제주에서는 왜 멸치 어업이 성행했을까?’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잠수기 어업(머구리어업) 기술을 동원한 일본 어업자가 제주와 강원도 어장에서 남획을 일삼은 사실 등이 적혀 있다. 저자는 일본 어민과 자본의 잠식이 조선 연안 주민의 삶에 미친 영향과 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본의 ‘침탈’에 대응해 나가는 모습도 잘 묘사하고 있다. 제6장은 ‘일제는 어떻게 조선 어장을 독점했을까?’에 관한 것이다. 1920~40년대 멸치(정어리) 잡이, 어비와 어유 제조업의 성쇠가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마지막 권말 부록에서 저자는 한국과 일

본의 멸치 음식문화를 비교하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멸치를 둘러싼 역사와 문화를 얘기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중심 인물은 조선인(한인)과 일본인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조선(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공간이 무대로 등장한다. 역사 측면에서는 저자가 두 나라 어민의 어업 이익을 둘러싼 다툼과 갈등을 ‘수탈’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근대 어업 기술과 자본력을 앞세운 원시적 축적기에 일본 어민과 어업자가 저질렀던 폭력성을 저자가 힘주어 강조하는 서술이 곳곳에서 눈에 띈다. ‘개발’과 ‘수탈’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본다면, 저자는 ‘수탈’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 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동질성 못지않게 이질성도 존재함을 저자는 부각시키고 있다. 명태·조기·대구·청어·민어·고등어를 좋아하는 조선인들이 그다지 수요가 많지 않았던 멸치·도미·삼치·장어류를 즐기게 된 것을 저자는 일본 음식문화의 영향으로 보았다. 특히 멸치젓 보급이 확대된 시기를 저자는 1930년대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까지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멸치 조리법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각자 고유한 특질을 만들어 왔다고 볼 수 있다.

III

이 책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사실과 정보를 많이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 평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궁금증을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 책의 열쇳말이기도 한 멸치에 관한 통념이다. 평자는 처음에 이 책의 제목만 읽고서 우리들 밥상에 자주 올라오는 ‘멸치’를 떠올렸

다. 그런데 제1장 ‘조선에서 멸치는 뭐라고 불렀을까?’를 읽고 나니 머리가 조금 복잡해졌다. 평자가 평소 알고 있었던 ‘멸치’와 이 책에서 말하려는 멸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저자의 친절한 설명 덕택에 멸치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으며, 멸치의 종류도 많음을 깨닫게 되었다. 게다가 “조선에서는 멸치와 정어리를 구분하지만, 일본에서는 멸치와 정어리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저자가 ‘멸치’라고만 적지 않고 괄호 안에 ‘정어리’를 넣어서 ‘멸치(정어리)’와 같은 식으로 표기(172쪽) 하는 까닭도 이해하게 되었다. 다만 평자가 저자의 서술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 “멸치를 기어(幾魚)라고 불렀다”(24쪽)고 적은 부분이 그것이다. 평자가 보기에는 문헌에서 기(幾)라고 적었더라도, 그 글자의 소리가 아닌 뜻을 따워서 그것을 ‘뗏’으로 읽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 책 제목에 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부제인 ‘멸치를 통해 본 조선의 어업 문화와 어장 약탈사’에서 ‘약탈’ 부분에 조금 신경이 간다. 먼저 이 부제만 놓고 본다면 약탈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궁금해진다. 문맥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또는 ‘일본 어민’ 정도로 짐작이 된다. 그렇지만 문장의 글자만 놓고 본다면 ‘약탈’의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바로 앞에 ‘조선의 어업 문화’와 연결되기에 더욱 그렇다. 저자는 본문(195-200쪽)에서 다케구니 도모야스(竹國友康)의 논리를 조리 있게 비판하고 있다. 다케구니가 일제 강점기 명태 남획의 주체를 어장 개발에 앞장선 ‘조선인’으로 본 것에 대하여 저자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명태 어장에서 기선저인망을 경영한 조선인은 전체의 약 15퍼센트로, 나머지 85퍼센트는 ‘일본인’이었다고 한다. 이것을 놓고 보면 저자가 부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어장 약탈사’의 주체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부제를 ‘일본인의 어장 약탈사’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이 든다.

셋째, 현재 한국 역사학계에서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 있는 ‘식민지 근대화’ 문제이다. 즉 일제 강점기에 ‘수탈’과 ‘개발’이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가 하는 관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멸치 조리법이 일본 영향을 받은 것처럼, ‘멸치 잡는 기술도 일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반문한다면, 이것은 너무 순진한 것일까? 값싸고 맛있는 음식이 국경을 넘어 확산되듯이, 값싸고 질 좋은 생산 방법도 국경을 넘어 전파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더구나 자본의 원시적 축적기에, 그것도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자본의 무한한 이윤추구 욕구(폭력성)와 함께, 일본인 어업자의 무절제한 이주 어촌 건설 욕구(식민지성)가 조선(한국)의 영세 어민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쳤음을 부정하거나 가볍게 다루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즉 식민지성(약탈, 수탈)과 함께 ‘근대성’(개발)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법도 하다. 아무튼 저자의 이 책이 새로운 시각의 후속 연구를 더 많이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